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Martyrs

2026.11



오늘을 신실하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은 스리랑카의 셀반 목사.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는 이 어려운 나라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 우리는 세계 각지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확장해 나가는 복음 사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는 이 형제 자매들은 마약 범죄 조직이 횡행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에서도, 그리고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는 스리랑카 땅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얻을 영적인 열매가 거의 없을지라도, 그들은 내일의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위해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매년 진행해 온 성탄절 선물 상자 배포 사역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영적인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카메룬의 한 주일학교 교사는 “이것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성탄절 선물 상자 배포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호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와 스리랑카, 네팔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성탄절 선물 상자를 배포하는 사역자들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이나 노력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어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 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팔의 잠파Jampa와 드론마Dronma 또한 오늘을 신실하게 살 뿐, 내일의 삶은 모두 주님께 맡기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인근 의료 시설에서 치료받는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을 돌보아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QR 코드를 통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잇힌 자들을 위한 사역

새로운 사역지를 모색하기로 했을 때 아론Aaron의 교회 성도들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자갈길과 먼지투성이 긴 진입로를 따라, 멕시코 중부 농경 지대의 농장들 중앙에 자리 잡은 란체리아스rancherias, 즉 농장 노동자들의 정착촌으로 조심스레 향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친 노동자들이 가득한 땅이었다.

아론과 성도들은 작은 집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 전기나 위생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학교도, 예배당도, 진료소도, 상점도 없었다. 란초스ranchos라고 불리는 그곳 사람들은 그저 일만 할 뿐이었다. 계절 농사가 뜸해지면, 어떤 가족은 생계를 위해 현지 마약 거래 조직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했다. 술과 마약과 매춘이 만연한 곳이었다. 아이들은 즉석에서 대충 만든 장난감과 공을 갖고 농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루터기만 남은 밭에서 뛰어놀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농약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선천적 기형과 불치병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마약 조직과 오만한 지주들 모두 자신들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는 큰 대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아론 일행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곳이 바로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신 땅임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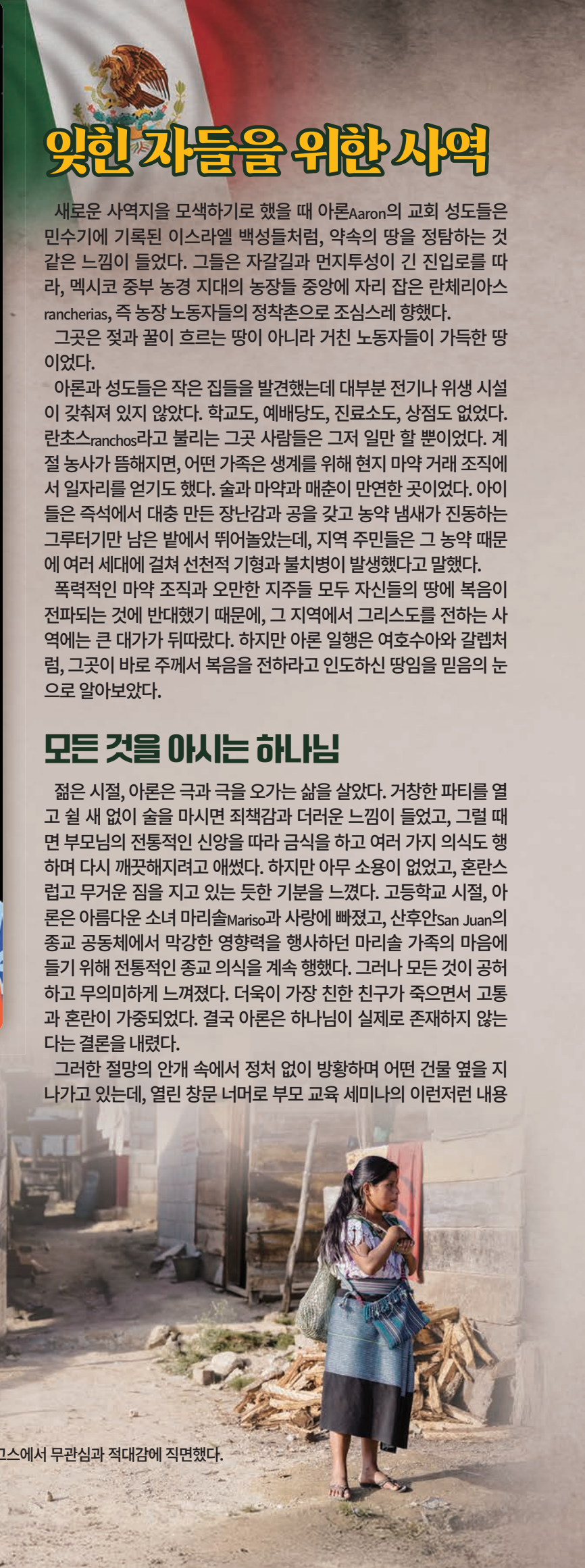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젊은 시절, 아론은 극과 극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 거창한 파티를 열고 쉴 새 없이 술을 마시면 죄책감과 더러운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면 부모님의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의식도 행하며 다시 깨끗해지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혼란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아론은 아름다운 소녀 마리솔Marisol과 사랑에 빠졌고, 산후안San Juan의 종교 공동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리솔 가족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계속 행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더욱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결국 아론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절망의 안개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어떤 건물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열린 창문 너머로 부모 교육 세미나의 이런저런 내용



▲ 복음 사역자들은 변화한 도시 산후안 데 로스 라고스에서 무관심과 적대감에 직면했다.



들이 들려왔다. 아론은 눈에 띄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강사가 말했다. 아론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그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주위를 슬쩍 둘러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을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론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모임이 끝난 뒤, 아론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미나 강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 강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자, 그는 기꺼이 “네”라고 대답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

아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했으나,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아내 마리솔과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아론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론을 비웃고 꾸짖었지만,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리솔이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아론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했다.

아론을 주님께 인도했던 세미나 강사는 도시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론과 다른 이들을 계속 양육했다. 마침내 아론은 이 교회를 가운데 한 교회의 목회자로 택함을 받아 성인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사회는 대체로 아론의 사역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지만, 때로는 노골적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회가 아이들을 돌본다며 오히려 납치해서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아론과 성도들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고, 또 다른 반대자들은 아론과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전단지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아론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는 농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었고, 이곳 사람들도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라고 아론은 말했다.

추수할 준비

아론과 교회 성도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주들의 사유지에 들어가는 위험, 그리고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특하면 방



▲ 아론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여, 도시뿐 아니라 주변 농촌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

아쇠를 당기는 마약 조직 조직원들을 피해 다니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아론은 사역지를 모색하던 때를 떠올리며, “처음에는 정말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론과 성도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

“자,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아론은 성도들에게 말했다. 아론과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모두가 직접 농장 노동자들의 정착촌에 갈 수 있거나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론은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성도들의 모습에 큰 격려를 받았다.

아론과 성도들은 정착촌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탁 트인 벌판에서 희망에 주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론은 광활하게 펼쳐진 농경지에 묻혀 지내는 이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잊힌 자들의 교회 the church of the forgotten’라 불렀다.

위험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론은 드론의 미행을 당하기도 하고, 마약상들과 마주치기도 하고, 창문을 검게 가린 SUV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총구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귀가하던 아론의 사역팀은 세력 다툼 중인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에 꼼짝 못하고 숨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론은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 있는 결과를 얻었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사역을 계속 해 나갈 힘을 얻었다.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간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지요. 단 두 명뿐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흔아홉 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라고 아론은 말했다.

변화를 체험한 것은 농장의 정착촌뿐만이 아니다. 아론의 아내 마리솔도 최전방 사역자들의 양육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 남편의 신앙에 반대했던 마리솔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작은 교회는 농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도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정탐꾼들처럼, 어려움과 반대 저 너머에 있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기회를 보고 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해서, 그들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비전을 굳게 붙잡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참된 제자를 삼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아론은 말했다.



◀ 마리솔과 아론(사진 속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갖고 농장을 찾아가는 사역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

2026년 11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2	3	4	5	6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 가족, 친구, 교회와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세요 vomkorea.com/idop	 시에라리온 악마숭배와 인신제사를 중단하고 인생이 변화된 브리마와 오스만을 위해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 단체의 활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서사하라 성도들이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8	9	10	11	12	13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 가족, 친구, 교회와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세요 vomkorea.com/idop	 르완다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딤후 1:7) 주시기를	 콜롬비아 집에서 쫓겨난 '레드존' 지역 산티아고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	 멕시코 중부 및 남부 지역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골 1:9-14)	 이집트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가족에게 핍박받는 개종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15	16	17	18	19	20
 중국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가정교회들을 위해	 네팔 힌두교 승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마헤쉬 목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현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골 3:15)	 부탄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잠비크 핍박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시 90:14)	
22	23	24	25	26	27
 에리트레아 성경을 사면 추척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해 숭배하며 성도를 핍박하던 이들의 구원을 위해	 시에라리온 무슬림 당국에 의해 교회 건물이 파괴된 성도들을 격려하시기를	 토고 부두교가 성행하는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쿠웨이트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마 9:37-38)	
29	30				
 중국 7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 핍박받는 존 차오 목사를 위해	 카메룬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6	7
 지부티 믿음 때문에 피해당한 개종자들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고 교제하도록	 레바논 믿음 때문에 방에 갇혔다가 빠져나와 전도하고 있는 칼레드를 위해
13	14
 아제르바이잔 SNS를 통한 전도 활동을 통해 시골 지역의 길 잃은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러시아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20	21
 니제르 이 나라를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에티오피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 개종자들을 위해
27	28
 시리아 믿음 때문에 직장과 집, 가족을 잃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브루나이 현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을 위해



5만 원의 동역, 핍박받는 기독교인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내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카메룬의 한 소년이 순교자의 소리로 부터 성탄절 선물 상자를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나이지리아와 네팔, 에티오피아, 카메룬,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 인도와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등 여러 나라의 핍박받는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900개 이상의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중에는 작년에 우리가 미처 가닿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선물 상자를 보내야 합니다!

각 상자에는 어린이 성경을 비롯해 학용품 및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춰 구비된 기타 용품(식료품이나 장난감, 교육비, 의류, 위생용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상자는 기독교 제한 국가의 현지 교회에 전달되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사역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탄절 선물 상자를 후원함으로써, **핍박받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 동역자들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도 이 선물 상자들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50,000원으로는 **1명의 어린이**에게,
500,000원으로는 **10명의 어린이**에게,
5,000,000원으로는 **100명의 어린이**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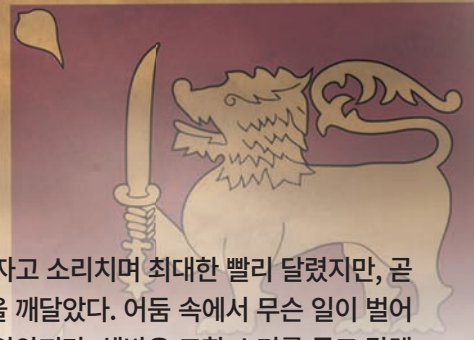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성탄절 상자'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성탄절'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셀반Selvan은 불교도인 싱할라족Sinhalese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군과 힌두교도인 타밀족Tamil 반군 사이에 벌어진 25년간의 스리랑카 내전으로 어머니와 네 형제 및 여러 사촌을 잃었다. 셀반 목사의 아버지는 가족과 교인들의安危를 특히 걱정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혹독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어떤 핍박은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기독교인은 농작물을 헐 값에 판매해야 하거나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때로는 더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셀반의 아버지인 아리스Aaris 목사는 구타를 당했고, 그의 집은 돌팔매질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이로 인해 인근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의 분노가 촉발되었다. 아리스 목사의 가족은 핍박이 곧 더 악화될 것을 예감했다. 9명의 아들 중 이미 4명을 잃은 아리스 목사는 반기독교적 폭력에 또 아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열린 셀반 사촌의 결혼식은 아리스 목사의 가족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자리였다.

힌두교도가 다수인 스리랑카의 시골에서 결혼식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이며, 마을 사람 모두가 결혼 소식을 알 뿐 아니라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곤 한다. 그러나 셀반의 사촌이 결혼식을 앞둔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주민들은 결혼식을 방해하기 위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셀반의 동생이 머리에 돌을 맞았다.

경찰은 돕거나 보호해 주기를 거부했고, 결국 셀반과 그의 형 갈렙Caleb이 동생을 오토바이 뒤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셀반과 갈렙은 매복해 있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괴한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졌고, 셀반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망쳤어요. 그런 뒤에 그들이 나에게도 뭔가를 던져서 나도 넘어졌어요”라고 갈렙은 말했다. 갈렙은 순식간에 괴한들에게 포위되었다. 괴한들은 갈렙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셀반은 갈렙에게 도망가자고 소리치며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곧 갈렙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셀반은 고함 소리를 듣고 갈렙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셀반은 뒤로 돌아 괴한들을 부르며 갈렙을 내버려 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셀반 역시 포위되어 공격을 당했다.

괴한들은 셀반의 무릎 뒤쪽을 가격해 무릎을 꿇게 하더니 항복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네가 믿는 그 ‘주님Lord’ 앞에 다시는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해주겠어!”라고 그들은 말했다.

괴한들은 직접 만든 잔인한 무기로 셀반을 마구 폭행했다. 자전거 톱니바퀴를 반으로 잘라 몽둥이 끝부분에 부착한 무기였다. 셀반은 땅에 웅크려 머리를 감싸안았지만, 팔과 다리 곳곳에 톱니바퀴에 찢혀 상처들이 생겼다. 셀반은 죽은 척하기로 했고, 그제서야 공격자들은 셀반은 길가 도랑에 내버려 두고 떠났다.

오토바이 헬멧에 비스듬히 맞고 튕겨나간 정글용 칼이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얼굴 옆에 깊은 상처를 입은 갈렙은 괴한들이 셀반에게 관심을 돌렸을 때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의식이 돌아온 갈렙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공격이 시작된 지 약 20분 후에 집에 도착했다. 가족들이 셀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도랑에서 그를 발견했다.

두 형제는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원에는 셀반에게 필요한 수준의 외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형제의 아버지 아리스 목사는 도움을 호소했고,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전 세계 교회의 도움을 모았다. 공격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뒤, 셀반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형외과 의사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6개월은 지나야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사건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 셀반은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들고 그 폭력 사건의 주동자 한 명을 찾아갔다.

“당신을 개종시키려고 이 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셀반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자, 그 남자는 화를 내지 않고 성경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공격자가 셀반 가족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셀반은 그를 안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공격자는 초대에 응했고, 셀반의 환대를 받았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셀반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내가 초대했다면, 아마 그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집 안으로 데려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셀반은 말했다.

갈렙은 교육 목사로서 자신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교인들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인내하며 용서하는 법을 깨닫게 돕는 것이

◀ 끔찍한 공격을 당한 후, 셀반(가운데)은 가족과 함께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겨왔다. 사진 왼쪽부터 셀반의 형제 아르주난과 갈렙, 아버지 아리스 목사, 그리고 셀반의 아내 아냐.





▲ 셀반이 공격당한 뒤,
수술을 받아야 했던 부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어도 용서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갈렘은 말했다.

이듬해 송구영신 철야 기도회가 열리고 있을 때, 공격자 중 한 명과 그의 가족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갈렘의 가족과 모든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공격자 일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갈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힌두교 지도자들은 교회 건물이 사람들 시야에 보이지 않게, 교회 옆에 힌두교 사원을 높이 세우려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담대한 비전과 증거는 멈추지 않았다.

“이 마을에 1,500명이 살고 있으니, 우리 계획은 1,500명 모두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을 모든 주민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셀반은 말했다.



“
내가 믿는
그 ‘주님’ 앞에
다시는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해주겠어!
”

▼ 셀반은 이번 사건과 자신의 가족의 용서를 통해 주께서 많은 주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확장할 계획이다.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기도의 날에 동참하세요!

11월 1일과 8일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전 세계 130개 나라, 10만 개 교회가 동참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올해는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바삼Bassam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나눕니다.

교회, 단체, 가정, 소그룹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핍박받는 아라비아 반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QR코드



순교자의 소리 각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2026년 자원봉사자의 날'에 초대합니다!

한해 동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동역하며 히13:3 말씀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 11월 28일 2pm - 부산 사무실
- 12월 05일 2pm - 서울 사무실
- 12월 19일 2pm - 대전 사무실

☎ 참석 / 문의

02-2065-0703 / 010-3151-2065



크리스마스 선물 | 추 | 천 | 도 | 서 |



기독교인이려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복음』

에릭 폴리·현숙 폴리 지음 | 20,000원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②

에릭 폴리 지음 | 세트 30,000원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10,000원



지하교회를
심으라
10,000원



지하교회로
살라
1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30,000원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 수익금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5만원으로 핍박받는 기독교인 자녀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사) 순교자의 소리
<https://vomkorea.com/donation>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104301-04-530516